

가요 리메이크에 관한 연구 -‘비와 당신’을 중심으로-

문화영,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hwa02g@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n the Remake of Popular Songs -Focusing on the song ‘Rain and You’-

Hwa-Yeong Mun,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원곡과 리메이크곡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중가요 리메이크에 관하여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곡과 리메이크곡 모두 많은 인기를 얻은 ‘비와 당신’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원곡, 이무진 버전, 그리고 림블피쉬 버전을 비교 분석하였다. 리메이크곡을 부르는 보컬 스타일에 맞추어 악기 구성, 조옮김, 템포 등을 달리하여 곡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리메이크곡은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곡이다 보니, 창작곡보다는 접근성이 좋고 창작의 고통이 적으므로 상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창작을 중요시하는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그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함이 있다. 다만 사회적 측면에서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소통하게 해주는 매개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1. 서론

하루에도 수십 곡의 신곡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친숙한 제목을 가진 곡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리메이크곡이다. 리메이크(Remake)는 이미 발표된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는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지만 대체로 원작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다[1]. 근래에는 대중들의 향기를 불러일으키는 드라마, 영화 등의 OST로도 그 시대의 원곡보다는 다른 가수가 녹음하여 리메이크한 곡을 많이 쓰고 있다. 리메이크는 어떤 가수가 부르고, 어떻게 편곡하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원곡이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성공적인 곡이라고 해도, 의도를 많이 해치거나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받기 어려워진다.

본 논문은 원곡과 리메이크곡의 분석을 통해 리메이크에 관하여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와 당신’은 원곡과 리메이크곡 모두 대중의 큰 인기를 받은 곡이기에 해당 곡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비와 당신’은 2006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라디오 스타’의 OST로, 작중 주연으로 출연한 배우 박중훈이 부른 노래다. 영화 ‘라디오 스타’는 배우 박중훈, 안성기 주연의 한국 영화로 이준익 감독이 연출했다. 영화는 가수왕 출신의 퇴물 가수 ‘최곤’이 MBS 영월 방송국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인 오후

의 희망곡의 DJ를 맡으면서 재기하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영화 설정상 이 노래로 극중 가수 ‘최곤’은 가수왕을 수상하였으며, 그에 걸맞게 현실에서도 대단히 큰 인기를 끈 명곡으로 다양한 가수들이 리메이크하여 불렀다. 주연 배우인 박중훈과 안성기는 이 영화로써 그 해에 청룡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기도 했다. 노래 가사의 화자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부정하면서도 안타까워하는 역설적인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문학이지만 영화의 줄거리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관객들에게 더욱 감동을 주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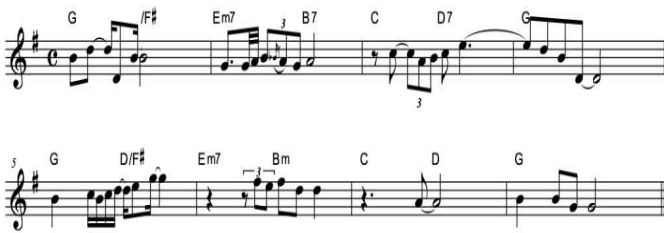
2. 비와 당신-박중훈

노래를 부른 박중훈은 대한민국의 배우이자 감독이다. TV보다는 영화에서 주로 활약하였으며, 출연한 영화로는 ‘라디오 스타’, ‘투깝스’, ‘마누라 죽이기’, ‘돈을 갖고 튀어라’, ‘깡패수업’,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해운대’, ‘내 깡패 같은 애인’ 등이 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라디오 스타’의 제목을 본뜬 프로그램으로 KBS 제2라디오가 신설한 ‘라디오 스타’의 DJ를 맡은 바가 있다[3].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방준석은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영화 음악 작곡가이다. 현재는 영화 음악 감독으로서 훨씬 유명하지만, 원래는 록 뮤지션이었다.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영화로는 ‘라디오

스타'뿐만 아니라 '공동경비구역 JSA', 구미호 가족', '해결사', '오직 그대만', '남과 여', 베테랑', '사도', '럭키', '신과 함께-죄와 벌', '모가디슈' 등이 있다. 이처럼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중, 2022년 3월 위암으로 별세하였다[4].

2.1 곡 분석

록 음악인 만큼 강한 일렉기타와 베이스, 드럼, 패드가 사용되었다. 특히나 일렉기타의 강하고 화려한 사운드가 돋보인다. 간주와 후주에는 기타 솔로 파트를 넣어 지루함을 달랬다. 서정적인 가사에 비하여 다소 빠른 86bpm의 템포로 진행된다. 노래를 부른 박중훈은 거칠고 울분을 토해내는 듯한 느낌으로 노래했다.



[그림1] 비와 당신-박중훈 전주

전주는 8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렉기타 두개를 사용하여 하나는 반주, 하나는 주요 라인을 연주한다. 일렉기타 두개를 사용함으로써 사운드가 풍부해지는 효과를 주었다.



[그림2] 비와 당신-박중훈 보컬 애드립

박중훈의 보컬 애드립은 마치 울부짖는 듯한 느낌을 주어 대중들에게 애절한 감정을 전달한다.

3. 비와 당신-이무진

이무진이 부른 OST '비와 당신'은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첫 회에 삽입되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노래를 부른 이무진은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이다. 2018년 '산책'이라는 곡으로 데뷔하였으며, 2020년 7월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된 서울에대 복도 영상으로 이슈가 되었고 2020년 '싱어게인-무명가수전'에 63호 가수로 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널리 알렸으며, 최종 3위를 차지했고 이후에 낸 싱글앨범 '신호등'으로 큰 히트를 치며 2020년대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중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래가 삽입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는 2021년에 방영한 tvN 목요일 스페셜 드라마이다. 2020년 상반기에 방영하여 역대 tvN 주중 드라마 중 수도권 최고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의 두 번째 시즌이다[5].

3.1 곡 분석

원곡과는 달리 어쿠스틱 밴드 사운드에 신디사이저를 접목시킨 레트로풍 사운드로 곡을 소화했으며 특히 이무진이 직접 연주한 기타 솔로 구간으로 아티스트 이무진의 면모를 보여주시기도 했다. 원곡보다는 느린 템포인 68bpm으로 연주하여 서글픈 느낌을 더 강조하였다. 원곡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으나 악기 구성과 보컬스타일을 담백하게 녹여내어 전하는 방식이 다른 느낌을 준다.

1절 후의 간주를 4마디로 줄여 구성하였으며 2절 후렴 전 간주에 기타 솔로 부분을 넣어 마지막 후렴을 더욱 절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원곡보다는 간주와 후주를 간결하게 편곡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정확하게 전달되는 효과를 준다.



[그림3] 비와 당신-이무진 전주

원곡과 동일하게 8마디로 구성하였으나, 원곡과는 달리 서정적인 느낌의 피아노를 삽입하여 더욱 아련한 느낌을 준다. 또한 메인 멜로디를 편곡하여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첫인상을 조성하였다.



[그림4] 비와 당신-이무진 보컬 애드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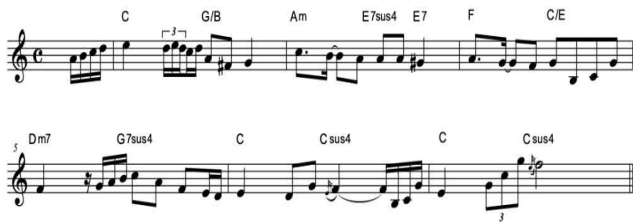
보컬 멜로디 라인 사이에서 들을 수 있는 애드립을 이무진의 보컬 스타일에 맞게 편곡하여 원곡의 보컬 애드립 보다는 음의 수가 더 많고 R&B 느낌이 짙게 묻어난다.

4. 비와 당신-림블피쉬

림블피쉬가 부른 비와 당신은 원곡이 가진 야성미와 터프함 대신 애절함과 그리움을 림블피쉬 특유의 보컬로 잘 살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림블피쉬는 대한민국 가수이며, 과거에는 4인조 록밴드였지만 멤버들 간의 음악적 견해 차이로 인해 모든 멤버가 탈퇴하고 보컬 멤버만 남아 원맨 밴드로 활동하고 있다. 림블피쉬는 2003년 SBS NET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에 2004년 정식으로 림블피쉬라는 그룹으로 데뷔하게 됐다[6].

4.1 곡 분석

원곡과는 달리 여성 보컬이 노래를 불러 여성 화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상황을 느끼게 한다. 여성 보컬이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G키인 원곡보다 5키를 높여 C키로 편곡하였으며, 원곡보다 느린 72bpm으로 연주하여 록보다는 발라드에 가까운 느낌을 주었다. 곡의 마지막 부분에는 후렴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악기 구성을 최소화하고 보컬이 감정 위주로 노래를 불렀으며 이러한 수정은 대중이 곡의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였다.



[그림5] 비와 당신-림블피쉬 전주

전주는 원곡과는 달리 6마디에 못갓춘마디로 구성되었으며 아련한 피아노 연주와 함께 시작된다. 원곡처럼 강렬한 첫인상을 주기보다는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암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6] 비와 당신-림블피쉬 보컬 애드립

2절 후렴의 보컬 애드립은 원곡과 같으나 다른 부분에서의 보컬 애드립은 원곡보다 빈도수를 줄여 담백하고 깔끔한 느낌을 준다. 이는 대중이 곡의 가사에 더욱 집중하는 것을 도와준다.

5. 결론

본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곡임에도 어떠한 수정을 가하는가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와 당신'의 경우 화려한 스타일의 곡이 아니기 때문에 리메이크곡을 부르는 보컬의 스타일에 집중하여 악기 구성, 조 옮김, 템포 등을 달리하여 곡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처럼 보컬의 스타일에 집중하므로써 대중이 편안하게 곡을 감상할 수 있으며 곡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원곡의 강렬한 사운드를 오히려 간결하고 담백하게 편곡하여 대중이 가사에 더욱 집중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는 가사에서 주는 아련함을 더 크게 와닿게 해준다.

리메이크곡은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곡이다 보니, 창작곡보다는 접근성이 좋고 창작의 고통이 적으므로 상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창작을 중요시하는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그저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함이 있다. 다만 사회적 측면에서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소통하게 해주는 매개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박선민, 「대중가요 리메이크와 복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리메이크·표절·번안·샘플링>
- [2] 이세기, 죽기 전에 꼭 봐야할 한국영화 1001, 마로니에북스, 2011
- [3] 김형석(2009.3.2), 영화배우 박중훈, 영화인
- [4] 사용가능 블로그, 비와 당신 원작자 별세 이유 나이 프로필, <https://sprint25.tistory.com/entry/%EB%B9%84%EC%99%80-%EB%8B%B9%EC%8B%A0-%EC%9B%90%EC%9E%91%EC%9E%90-%EB%B0%A9%EC%A4%80%EC%84%9D-%EB%B3%84%EC%84%B8-%EC%9D%B4%EC%9C%A0-%EB%82%98%EC%9D%B4-%ED%94%84%EB%A1%9C%ED%95%84>, 2023.3
- [5] 정희연, 이무진, '슬의생2' OST 합류...'비와 당신' 리메이크 발매, 스포츠동아, 2021
- [6] 음악대장 블로그, 림블피쉬-비와당신, <https://blog.naver.com/kimmnj7646/223013429439>